

## 역사서 검색으로 관찰한 한반도 강설현상

김기원 · 신만용

국민대학교 산림자원학과

(2002년 10월 28일 접수; 2002년 11월 25일 수락)

## Snow Falling Phenomenon of the Korean Peninsular Based on the Records of Old Literatures

Ki-Weon Kim and Man Yong Shin

Department of Forest Resources, Kookmin University, Seoul 136-702, Korea

(Received October 28, 2002; Accepted November 25, 2002)

### ABSTRACT

This study was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snow falling phenomenon in Korea for 1934 years from BC 6 to 1928 based on the records of old literatures, which are the true record of the Chosun dynasty, records of king Kojong and Soonjong, and some data including history of the Koryo in internet home page of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ey words used in search procedure were totally 20 words such as snow, heavy snow, big snow, snow pellets, snowstorm, avalanche, etc. The searching contents consisted of the time of the first and the last snow, the amount of snow falling, snow damage, the thought about heavy snow phenomenon, and unusual weather conditions related to snow. The earliest record for the first snow was July of the rural calendar in 733 and the latest record for the last snow was June 11 of the lunar calendar. From these records, it could be estimated that there were some snow falling even in summer season. The amount of almost heavy snow ranged from 1.2 m to 1.5 m, but sometimes there were some records about the amount of snow falling higher than 3 meters. It was also found that there were three records about big heavy snow damages. In 1524 and 1525, approximately 100 and 140 peoples in Kyungung, Hamgyung Province were dead due to heavy snowstorm. It was also recorded that 91 people in Jeju island were dead in 1670 because of snow damage. Some singular records about snow were also found in old literatures. There was a congratulatory ceremony of new snow when the first snow was falling in the year. There was also a ritual praying for snow when there was no snow in the year. It was also found that there was snow falling with worms and red snow falling.

*Key words* : snow, snow falling phenomenon, old literatures, old snow records

### I. 서 론

동일 주제를 대상으로 현시대의 것과 지난 수 백년 전 과거의 것을 서로 비교하는 연구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 하나 때문만이라도 흥미를 갖게 한다. 본 논문은 『국역 조선왕조실록』과 『국역 고

종순종실록』(서울 시스템간) 및 인터넷을 검색하여 과거 1934년간의 우리나라 강설현상을 추적하여 그 특장을 정리하여 본 것이다.

눈(雪)을 표현하는 단어들 많이 있고 또 한자어와 한글로도 나뉘어져 있어서 검색을 위해 쓰는 단어의 조사와 선택이 결과를 표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준다. 따라서 가능한 한 눈과 관련된 많은 단어를 사용하였다. 과거와 현재의 한반도 기상현상을 비교, 분석하는데 기초자료를 얻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 II. 재료 및 방법

조사에 쓰인 자료는 서울 시스템(주)에서 CD-Rom으로 제작 발간한 『국역 조선왕조실록』(1995)과 『국역 고종순종실록』(1998), 그리고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눈(雪)에 관한 과거의 기록 자료이다. 후자는 기상청이 『고려사』와 『증보문헌비고』를 참고하여 정리한 자료이다. 지리적 시간적 범위는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시대를 망라한 것으로서 BC6년 11월부터 순종 말년 1928년까지 1934년간이다(서울 시스템, 1995, 1998; www.kma.go.kr/snow). 검색방법에 대해서는 원본을 대상으로 제안한 예가 있으나(박향재, 1983) 국역본인 경우 해당되는 단어를 사용하여 CD-Rom에 제안된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검색에 사용한 단어들은 강설현상에 관련되는 것들로서 이들을 분야별로 구분하면, 1) 눈오는 현상을 표현한 검색어군(群), 2) 눈오는 정도를 표현한 검색어군, 3) 눈의 종류를 나타내는 검색어군, 4) 눈의 양이나 쌓인 것을 나타내는 검색어군, 5) 눈 피해를 나타내는 검색어군 등 5가지이다. 검색에 쓰인 단어들은 총 20개

단어로서, 강설(降雪), 눈(雪), 첫눈, 신설(新雪), 큰눈, 대설(大雪), 폭설(暴雪), 눈보라, 싸락눈(霰), 함박눈, 진눈깨비, 설즙(雪汁), 빙설(氷雪), 적설(積雪), 강설량(降雪量), 적설량(積雪量), 눈피해, 설해(雪害), 설도(雪倒), 눈사태 등이다. Table 1은 이들 각 검색어군에 속하는 단어들을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한편, CD-Rom 『국역 조선왕조실록』은 전체내용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4분야로 분류하여 각 분야별로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강설현상은 문화의 하위 단위인 <과학> 속의 <천기(天氣)>에 구분되어 있다.

연산자들은 동방미디어(주)에서 제작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국역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할 때 이용하는 것들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주요 연산자는 &, |, :, &!, ?, () 등 여섯 개이다. 이들의 쓰임새를 설명하면 Table 2와 같다. 검색에서는 Table 1에 제시된 단어들을 이들 연산자의 쓰임에 적절히 조합하여 필요한 기록들을 찾아내었다.

## III. 결과와 고찰

### 3.1. 단어별 검색결과

조선시대 날씨에 관계되는 내용은 거의 모두 <천기(天氣)> 속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검색건수가 30,753건에 달하여 개별 건수의 내용을 확인하는데 많은 시

Table 1. Classification of search word groups and corresponding words

검색어군 (檢索語群)	검색에 쓰인 단어
눈오는 현상을 표현한 검색어군	강설(降雪), 눈(雪), 첫눈, 신설(新雪)
눈오는 정도를 표현한 검색어군	큰눈, 대설(大雪), 폭설(暴雪)
눈의 종류를 나타내는 검색어군	눈보라, 싸락눈(霰), 함박눈, 진눈깨비, 雪汁(설즙), 빙설(氷雪)
눈의 양이나 쌓인 것을 나타내는 검색어군	적설(積雪), 강설량(降雪量), 적설량(積雪量)
눈피해를 나타내는 검색어군	눈피해, 설해(雪害), 설도(雪倒), 눈사태
CD-Rom 내용 분류 단위 속의 강설현상	문화→과학→천기(天氣)

Table 2. Logic operators used in searching procedure and their description

연산자	쓰임새
&	두 단어 이상을 대상으로 해당하는 단어가 있는 글을 모두 검색
	입력된 둘 이상의 단어들 중에서 해당하는 단어가 하나라도 있는 글을 찾아내는 기능
:	두 단어 이상을 대상으로 해당되는 단어가 띄어쓰기로 연결되어 있는 글을 검색하는 기능
&!	두 단어 이상을 대상으로 이 연산자 앞의 단어는 있지만 뒷단어는 없는 경우를 검색하는 연산자
?	찾고자 하는 검색어를 확실하게 모를 경우 임의의 문자에 대응하는 검색 조건으로 단어의 맨 뒤에 붙여서 사용하는 연산자
()	우선 순위의 뜻으로 () 속의 조건을 우선하여 검색하는 기능을 가짐

Table 3. Results of search numbers by key words

단어	검색 건수	단어	검색 건수	단어	검색 건수	단어	검색 건수	단어	검색 건수	단어	검색 건수
강설	0	신설	1	눈 보 라	34	적설	4	폭설 : 피해	0	설즙	1
눈	200餘	큰눈	16	싸 락 눈	19	적설량	1	설해	1	빙설	8
눈 &(雪)	28	대설	19	함 박 눈	1	강설량	1	설도	0	천기	30753
첫눈	8	폭설	6	진눈깨비	23	눈 : 피해	3	눈사태	2		

간이 소요되고, 또 내용 중에는 강설현상과 관계없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일일이 검색하는 것을 포기하고 개별 단어로 검색하였다.

강설현상을 표현하는 단어나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연산자로 검색조합을 사용하여 얻은 검색 건수를 나타내면 Table 3과 같다. 이 결과는 단지 『국역 조선왕조실록』와 『국역 고종순종실록』만을 대상으로 얻은 결과이다.

### 3.2. 검색 내용분류

검색에서 얻은 내용을 종합하여 밝히고자 하는 항목들을 열거하면, 기간중 첫눈 온 시기와 끝눈 온 시기, 남쪽 지역 강설현상의 분포, 적설량, 눈피해, 강설현상에 따른 의식, 눈관련 기상이변 등이다.

#### 3.2.1. 사용단위

적설량의 기록을 위해 사용한 단위는 척관법(尺貫法)이다. 척관법의 시조는 중국 은, 주시대에 있었다는 주척이다. 척관법에는 길이의 기본단위로서 자 또는 척(尺)을 쓰는데 이를 기준으로 상위단위로서 장(丈), 하위단위로서 치(寸)와 분(分)을 구분한다. 즉, 1장은 10자, 1자는 10치, 1치는 10푼으로 나뉜다(김용관, 1963). 1905년 대한제국 법률 제 1호로 도량형 규칙을 제정 공포하면서 이 때 비로소 척관법의 기본단위가 되는 길이의 단위인 척, 즉 1자를 0.303 m(30.3 cm)로 정의하였다.

한편,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 우리나라는 중국대륙의 영향을 받아 척관법을 따르기는 했어도 시대에 따라 고유의 것으로 개발해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다. 즉, 고구려척은 1자가 35.51 cm 이었고, 신라는 주척인 20.45 cm를 사용하였다. 또 고려는 0.45 cm를 기준으로 한 십지척을 제정해 사용했는데 고려척은 일본에 전해져 일본 도량형제도의 기초가 되기도 하였다(한국경제, 2000. 12. 13일자).

1자에 대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용 기준이 있지

만 본 글에서는 원문이 국역된 자료인 만큼 1905년의 정의에 따르기로 하며 1자는 30.3 cm, 1치는 3.03 cm, 1푼은 3.03 mm로 정한다. 하지만, 시대상을 반영하고 삼국시대나 고려의 상황을 감안하여 국역원문에 기록된 그대로의 단위인 장, 자, 치, 푼을 쓰기로 한다.

#### 3.2.2. 첫눈 온 시기와 마지막 눈 온 시기

첫눈과 끝눈의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가를 먼저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겨울의 시작과 끝을 기준으로 입동(立冬)과 입춘(立春)을 기준으로 할 수 있으나 명확하지 않다. 기록상 한 여름에도 눈 내린 사례도 있어서 기준 설정하기가 애매하지만 편의상 가을로 접어드는 절기인 입추(立秋)를 기준으로 입추 이전(7월 이전)에 온 것을 마지막 눈, 입추 이후(7월부터)의 눈을 첫눈이라고 구분하고자 한다. 물론 이 시점들은 음력이다.

첫눈은 7월(733년)에 신라땅과 1637년 전라도 무주에서 있었다. 당시 신라땅에는 큰눈이 한 장(一丈)내렸다고 되어 있고 807년 8월에도 대설이 기록되었다. 이어서 9월 3일(1609년/광해군 1년)에 싸락눈, 9월 6일(1711년 숙종 때)에 진눈깨비가 8일 동안 1자나 내렸고, 9월 11일(1444년/세종 26년)에 눈보라 등의 기록이 있다.

마지막 눈 기록은 6월 11일에 눈보라, 6월 5일에 싸락눈(1473년), 6월 1일에 눈보라 등을 발견할 수 있다. 절기상 한 여름에도 눈이 왔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여름철이라고 할 수 있는 5~8월까지의 강설 기록의 분포를 살펴보면 눈, 대설, 큰 눈, 진눈깨비, 눈보라 등 구분없이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4는 여름철 강설현상을 연도별·월별로 나타낸 것이다.

733년을 제외하고 초여름 혹은 늦여름인 5월, 8월은 큰 눈 혹은 대설이 내리고 있고, 한여름이라고 할 수 있는 6월, 7월은 눈, 싸락눈, 눈보라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록상으로만 본다면 700~800년대에 여름철 큰 눈이 내렸고 다시 800년쯤 후인 1600년대에 여름철에

**Table 4.** Yearly snow falling phenomenon in summer

年 月	733	807	808	815	823	839	1398	1473	1607	1637	1658	1659	1664	1685	1745	1884
5월				눈		대설	진눈깨비							싸락눈	큰눈	큰눈
6월								싸락눈	눈		눈보라		눈보라			
7월	눈 1丈				눈					눈		눈				
8월		대설	눈													

눈이 자주 내렸음을 읽을 수 있다.

남쪽지역 강설현상 분포를 위해서는 주로 눈이 자주 오지 않는 남쪽 지방의 대설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었는데 제주, 경주, 무주, 광주 등지에서 몇 건의 큰 눈 기록이 있었다. 특히 무주지역은 1637년 7월에도 눈이 내린 기록이 있어서 예나 지금이나 남쪽 지방 중 눈이 많이 오는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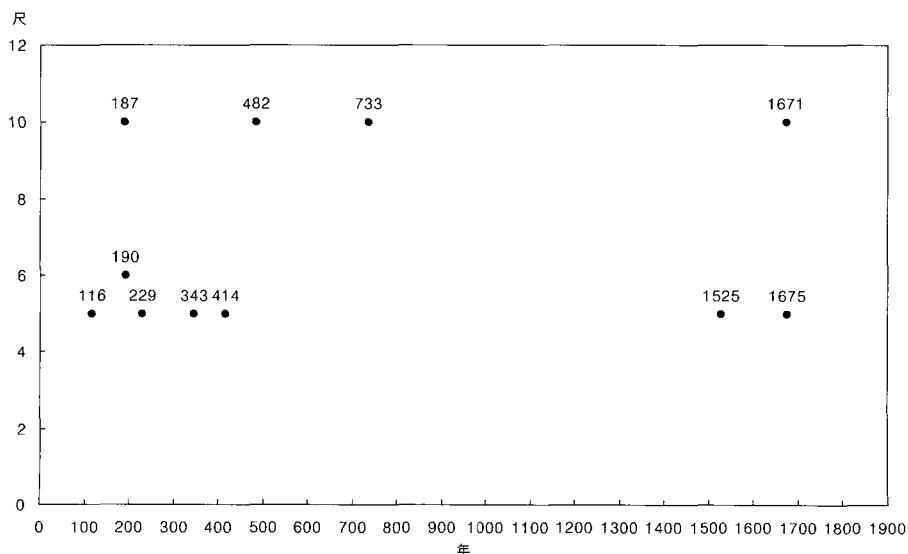
3.2.3. 적설량

최고 적설량은 187년 10월 신라땅과, 482년 10월 백제땅에서 눈이 약 열 자 혹은 한 장(丈餘 혹은 一丈)의 기록이 있고, 고구려에서는 190년 9월에 약 여섯자 등의 기록이 있다. 그 다음으로 자주 나타나는 적설기록의 수치로서 4~5자가 제일 많이 발견된다.

이처럼 적설량의 거의 대부분이 자(尺) 단위로 기록되고 있으며 하위 단위인 치(寸)나 분(分)은 흔하지 않다. 그러나 1527년 4월 9일(중종)의 경우 강원도 간성, 인제 등지에 눈이 내렸는데 적설량을 1치 3분,

1685년 무주 덕유산, 강진 영암 등지의 경우 싸락눈이 각각 2~3치, 3~4치 등으로 기록한 흔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mm까지 측정하였다는 사실인데 적설량을 지방에서까지 상당히 정확히 기록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500여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상당히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던 것은 세종대왕의 노력 덕분일 것으로 본다. 세종대왕이 길이, 부피, 무게 등의 척도를 만들고 해시계와 측우기, 황종률관 등 시간과 강우량과 소리의 고저를 측정하는 독자적인 도량형기를 창안하여 정비한 것은 널리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한편으로, 고려시대인 1359년 2월에 평지에 눈이 2자 5치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위단위인 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Fig. 1은 5자 이상의 적설 기록을 발췌하여 연도별로 분포를 나타내 본 것이다. 총 11건의 기록 중 1장 내린 것이 4건이나 되고, 6자 1건, 5자 6건이다. 조사된 문헌의 기록에만 의존하여 살펴본다면, 최대적설



**Fig. 1.** Yearly distribution of heavy snow falling amount.

을 기록하고 있는 1장(10자)의 출현빈도는 187년, 482년, 733년, 1671년이다. 733년까지 약 250~300년 간격으로 나타났고 그 이후에는 940년만에 나타났다.

#### 3.2.4. 눈피해

눈피해(설해) 기록은 인명피해와 특히 눈사태로 인한 산림피해를 추적하려 조사해 본 것이다. 조사에 사용한 단어(조합)는 눈:피해, 폭설:피해, 설해, 설도, 눈사태, 폭설 등 6개 단어조합이다. 폭설은 피해와 관련된 단어는 아니지만 기록 중에 피해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여기에 포함시켰다.

총 검색건수는 12건인데 이중 눈사태에 대한 검색건수는 2건으로서 1864년 양양부와 1883년 고성에서 발생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큰 피해의 기록은 없지만 두 건 모두 사람이 죽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폭설에 의한 인명 피해는 여러 번 발견된다. 그 중 구체적으로 숫자를 거론한 기록을 살펴보면, 제일 많은 인명피해 기록으로서 조선조 중종때인 1525년 12월 1일 함경도 경성 땅에 눈이 3일간 내려 140여명이 죽은 것을 찾을 수 있다. 이 당시 어사인 김섬(金銛)이 왕께 복명하기를, “함경도는 큰 눈이 내려 평지에도 4~5자나 쌓인데다 광풍(狂風)이 휘몰아쳐 행인들이 묶여 있습니다. 또 바닷물이 언덕 위로 4~5백 보(步)까지 넘쳐 연안(沿岸)의 어부의 집 및 소금가마와 어선이 거의 유실되었고, 민중들이 익사하거나 눈에 묻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경성(鏡城)에서만도 죽은 사람이 140명인데, 눈에 덮인 자갈한 집들에서 나오지 못하고 주러죽은 사람은 반드시 눈이 녹은 다음에야 그 수를 알 수 있겠습니까.”라 하였다. 눈 피해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이곳에서는 그 전해에도 100여명이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현종 때인 1670년 11월 2일 제주도에 큰 눈이 내려 91명이 죽었다. 신라땅에서는 822년 2월에 눈이 다섯자나 내려 초목이 말라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1609년 9월 3일에 함경도 정평 땅에는 큰 싸락눈이 반 자 가량 내려 닭이나 개가 맞아 죽기도 하였다고 한다. 1672년 1월에 큰눈이 한 자 가량 쌓였는데 서울 산과 각 릉의 소나무가 눌러 부러진 것이 매우 많았다고 기록하였다.

한편, 1487년 11월 29일(성종)은 동지였는데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망궐례(望闕禮)와 하례(賀禮)를 정지하였다는 기록도 엿 볼 수 있다. 그러나 눈피해에 대한 내용은 주로 인명과 가축, 가축 등에 국한 것으로 보인다.

#### 3.2.5. 강설현상에 따른 의식

첫눈이 오면 상서로운 것으로 여겨 나라에서는 신설하례(新雪賀禮)의 의식을 갖고, 때때로 시를 지어 즐기기도 하였다. 눈이 오지 않으면 기설제(祈雪祭)를 지냈다.

1417년에 신설하례의 기록이 있으며, 1487년 성종 때에는 시를 지어 축하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눈이 적절히 많이 오면 상서로운 것으로 여겨 권농을 장려하기도 하였다. 1798년 정조대왕이 풍년이 가장 으뜸가는 상서(祥瑞)이며 이것은 사전에 징험이 있다고 믿고 그것을 눈에서 찾고 있다. 선달전에 세 번의 하얀 조짐(눈을 의미), 이름하여 납전삼백(臘前三白)이 있으면 다음해에 크게 풍년들 조짐이 있다면서, 이 해에는 이미 입동에서 납 까지의 기간 중에 여러 차례 눈이 와서 이를 상서롭게 생각하였다. 왕이 말씀하길, “입동에서 납까지 모두 70여 일 동안 27번의 대설이 내려, 3을 세 번 곱하여 9가 되는데다 다시 3을 곱한 숫자가 되었으니(중략)” 하면서, “상서를 내려주시는 하늘의 권고에 보답하는 것은 오직 권농(勸農) 두 글자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하였다.

1541년 중종 때 겨울 가뭄 등 재변(災變)에 대해 걱정하고 있을 때 대신 김안국이 아뢰길, “몸가짐을 단정히 하며 수양을 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 되고, 기도하는 것은 말단의 일입니다. 그러나 눈(雪)은 바로 오곡(五穀)의 정기(精氣)로 땅을 적셔주며, 또 양맥(兩麥)을 덮어주어 양맥이 얼어죽지 않게 하고, 황충(蝗蟲)을 땅 속으로 들어가게 하므로 역대 중국에서는 눈을 빌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눈을 빌지 않았으나 겨울에 눈이 내리지 않으면 눈이 내리도록 기도하여도 괜찮을 듯합니다.” 하였으나 왕이 政事는 힘쓰지 않고 기양(祈禳)하는 것을 별로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1685년 숙종 때 예조(禮曹)에서, “겨울의 차서(次序)가 이미 반이 지났는데도 날이 따뜻하기가 봄과 같으며, 절후가 대설이 지났는데도 한 점의 눈도 내리지 아니합니다. 중신(重臣)을 보내서 기설제를 종묘와 사직단 및 북교에서 행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더니 왕이 허락하였다.

#### 3.2.6. 눈 관련 기상이변

눈과 관련된 기상이변은 여러 번 발견된다. 주로 한겨울이 지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눈이 내리지 않는 다거나, 눈이 올 때 비 올 때처럼 천등번개가 심하게 동반된다거나, 이상한 벌레들이 섞여 내린다거나 색깔 있는 눈이 내리는 일 등이다.

중종때인 1512년에는 대설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송충이 침복(蟄伏)하지 않고 있는 것을 걱정하고 있고, 1678년 숙종때에는 큰 눈 올 때 누에만한 활충(活蟲)이 섞여 내리기도 하였다. 1609년 9월 3일에 함경도 정평 땅에 내린 싸락눈은 그 크기가 거위알 내지 비둘기알만 하였다고 한다. 644년 고구려 땅 평양에서는 붉은 눈이 내린 기록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상이변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걱정스럽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은 기상이변의 원인을 정사(政事)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거나 군신(君臣)의 덕치(德治)가 부족하다는 등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종 때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1526년 10월 11일 영의정 남곤이 재변에 대한 책임으로 사직하기를 청하는 대목이 주목된다. 영의정 남곤이 아뢰기를, “눈(雪)은 양기(陽氣)가 폐장(閉藏)될 때 내리는 것이므로 눈과 천둥이 한꺼번에 발생할 이치가 만무합니다. 따라서 비상한 재변치고 이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재변을 발생하게 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늘이 경계를 알리는 것만은 지극히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단서를 모르겠으니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중략). 신이 음양(陰陽)을 섭리(變理)하는 지위에 있는데 재변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모든 재변의 발생은 모두 신이 못한 소치입니다. 또 신은 다른 사람의 예(例)와는 달라서 수상(首相)으로서 이미 재변을 초치한 단서도 몰랐고 또 재변에 대응할 방법도 몰랐으니, 신의 못남이 더욱 극심합니다(중략). 만약 정치의 기강을 혁신시키려 한다면 모름지기 신 같은 사람을 출퇴(黜退)시킨 뒤에야 하늘의 견책에 응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또 1530년 1월 23일에는 홍문관 유보가 아뢰길, “(중략) 재변이 일어나는 것은 실상 사람이 부르는 것이니, 하늘의 견고(譴告)가 어찌 까닭이 없겠습니까? 지금은 정월(正月)입니다. 그런데 흰 운기(雲氣)가 태양을 가로지르고 관(冠)과 이(履)의 변과까지 있는가 하면, 눈보라가 사납게 일고 벌레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재변이 있었습니다(중략). 하늘의 경고가 깊고도 절박합니다(중략). 모르겠습니다만, 전하께서 새벽에 일어나고 저녁 늦게 자는 노고가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삼가 전하께서는 위로 천재(天災)를 두려워하고 아래로는 백성의 고통을 돌보는 성실한 마음으로 재변 없앨 방도를 강구하소서.”라 하였다.

재변의 책임소재를 인재(人災)에 두는 것은 군신관계

를 중요시하였던 과거정치 조직에서나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오늘날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재변의 수습과 대책에 열중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 IV. 적 요

본 논문은 우리나라 기원전 6년 11월부터 1928년까지 1934년간의 강설기록을 살펴 본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정리할 수 있었다.

첫눈 기록은 733년 7월에 신라땅과 1637년 전라도 무주에서 있었고 끝눈 기록은 6월 11일에 눈보라가 온 것으로 기록되어 한 여름에도 눈이 왔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적설량은 척관법 단위를 써서 기록하였는데 최고 적설량은 약 열 자 혹은 한 장(丈餘 혹은 一丈)의 기록이 있었으며 자주 나타나는 큰눈 기록은 대개 4-5자가 많이 발견된다. 단위를 치(寸)와 분(分)까지 사용하여 기록한 바 정확성을 기하려 한 흔적도 보인다.

눈피해는 주로 인명과 가옥 등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 눈피해 중 인명피해로는 크게 3건이 발견된다. 1524년과 1525년에 함경도 경성 땅에서 각각 100여명과 140여명, 1670년에는 제주도에 큰눈이 내려 91명이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첫눈이 오면 상서로운 것으로 여겨 나라에서는 신설하례(新雪賀禮)의 의식을 갖고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였고, 눈이 오지 않으면 왕에게 간하여 기설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눈과 관련된 기상이변은 여러 번 발견된다. 눈 올 때 심한 천둥번개가 친다거나, 이상한 벌레들이 섞여 내린다거나 붉은 색깔의 눈이 내렸다는 기록이 있다.

검색한 결과는 단어별 건수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나 미진한 것이다. 검색방법이나 검색에 사용해야 할 단어 중에는 좀 더 합당한 단어들이 있을 줄 안다. 차후의 연구를 위한 과제로 남기기를 희망한다.

#### 인용문헌

- 김용관, 1963: 신고 측량학. 수협사. p.358.  
 박향재, 1983: 조선왕조실록의 검색 시스템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shsasn 보고집 5, 29-34.  
 서울시스템(주), 1995: 국역 조선왕조실록. CD-Rom.  
 서울시스템(주), 1998: 국역 고종순종실록. CD-Rom.  
 한국경제, 2000: [천자칼럼] 재래식 도량형. 12월 13일자. <http://www.kma.go.kr/climate/snow/snow07.htm>